

여성 기준으로 살펴본 국산 중형세단 4종

국산 중형 세단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아내 혹은 여성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현대자동차 '쏘나타', 기아자동차 'K5', 쉐보레 '말리부', 르노삼성 'SM5' 등 국내 대표 중형 세단 4종을 단순한 성능 비교가 아닌 여성을 위한 특별한 옵션과 기능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살펴봤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편의·안전·디자인...여성 운전자 마음을 흔드는 차는?



튼튼한 훈남 같은 차
현대자동차 LF 쏘나타

신형 LF 쏘나타는 스티어링 휠(운전대)의 지름이 1cm 작아졌다. 이 덕분에 여성들도 보다 안정적이고 수월하게 핸들링을 할 수 있게 됐다. 속도 감응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MDPS)도 장착했다. 고속에서는 핸들이 묵직해지고 주차 시에는 쉽게 핸들을 돌릴 수 있도록 가벼워진다.

안전 운행을 돕는 기능도 충실하다. 상황등을 켜고 주행할 경우 상대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감지해 하향등으로 자동 전환해주는 램프제어 기능인 스마트 하이빔 기능이 눈에 띈다. 운전을 하면서 다른 제어장치를 조작하는데 서툰 여성의 안전한 주행을 돕는다. 이외에도 초음파 센서가 주차 공간을 탐색해 주차를 안내해주는 어드밴스드 주차조향 보조시스템, 시야 사각지대 차량 또는 후방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차량 등을 인지해 경보해 주는 스마트 후측방 경보시스템(BSD) 등 섬세한 안전 사양을 갖췄다.

- ▶주요 제원(2.0모델 기준)
- 배기량 : 1999cc
- 최대출력 : 163마력
- 연비 : 12.1km/l
- 가격 : 2255만~2990만원



명품 디자인에 합리적인 가격
기아자동차 K5

디자인을 가장 중시한다면 K5가 모범답안이다. 2011년 한국차 최초로 세계적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5년형 K5는 2종의 신규 알루미늄을 개발해 추가 운영하고, 기존 터보모델에만 적용되던 럭셔리한 느낌의 '블랙하이그로시 인터리어'를 가솔린 모델에 확대 적용해 감성 만족도를 높였다. 여성을 배려한 인터리어 디자인도 돋보인다.

여성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 및 편의사양을 기본 적용했다. 전 모델에 시가라이터를 삭제하고 급속 USB 충전기를 기본 적용해 흡연율이 적고 스마트 기기 이용률이 높은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배려했다. 또한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시스템을 기본 적용하고, 흡차음재를 보강해 보다 정숙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완성했다.

- ▶주요 제원(2.0모델 기준)
- 배기량 : 1999cc
- 최대출력 : 172마력
- 연비 : 11.9km/l
- 가격 : 2210만~2820만원



최상의 안락함과 세심한 실내 장비
한국지엠 쉐보레 말리부

말리부의 최대 장점은 안락함이다. 장시간 주행에도 언제나 편안함을 느끼도록 인체공학적인 설계의 듀얼 콕핏(Dual Cockpit) 인터리어 레이아웃이 적용됐다. 특히 시트의 어깨 및 엉덩이 부분에 넉넉한 여유 공간을 확보해 여성들이 더욱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여성을 위한 대표적인 옵션은 시크릿 큐브다. 위 아래로 여닫는 7인치 넥스트 젠(Next Gen)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뒤로 숨겨진 6인치 깊이의 '시크릿 큐브' 저장 공간은 말리부의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감각을 엿볼 수 있는 키포인트다. 화장품이나 액세서리 등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다. 안전 운전을 돕는 장비도 충실하다. 사각지대 경고시스템을 적용해 차선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준다. 차량 후진 등과 같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돌발적인 위험 요소를 감지해 알려주는 후측방 경고시스템도 장착되어 있다.

- ▶주요 제원(2.0모델 기준)
- 배기량 : 1998cc
- 최대출력 : 141마력
- 연비 : 11.6km/l
- 가격 : 2429만~3069만원



내맘을 잘 아는 친구 같은 차
르노삼성 SM5

돋보이는 기능은 오토 클로징이다. 깜빡하고 도어를 잠그지 않아도 차에서 몇 발자국만 떨어지면 자동으로 문이 잠긴다. 차 문을 잠그는 것보다 타고 내리는 아이들을 먼저 챙겨야 하는 엄마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능이다. 여성 운전자들에게 호평 받는 또 하나의 매력은 파퓰 디퓨저다. 프랑스 최고급 향수 업체인 페메니의 향수 원액을 사용했다. 차량 실내로 은은한 향기가 배출되어 상쾌한 운전을 경험하게 해준다.

안전 기능도 충실하다. 시속 35km 이상으로 차량이 주행할 때 좌우 사각지역에 차량이 접근할 경우 이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해 줌으로써 충돌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는 첨단 안전시스템인 사각지대 정보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 초보 운전자를 위한 스피드 리미터(Speed Limiter)도 있다.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첨단 주행시스템이다.

- ▶주요 제원(SM5 플래티넘 기준)
- 배기량 : 1998cc
- 최대출력 : 141마력
- 연비 : 12.6km/l
- 가격 : 2230만~2915만원



유럽풍의 우아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소노펠리체 승마클럽의 클럽 하우스 전경.

사진제공 | 소노펠리체

승마클럽에 18홀 골프장까지...럭셔리한 휴식 책임진다

■ 강원도 흥천 '대명 소노펠리체'

기존 리조트와 차별화...럭셔리 마케팅 기본 40평부터 100평대 대형객실 완비 승마클럽·18홀 CC 등 부대시설도 고급

"자 허리를 곧게 펴고 말걸음에 몸의 리듬을 맞추세요."

밝고 차분한 분위기의 공간, 바닥에는 부직포와 독일산 규사를 섞은 부드러운 흙이 폭신하게 깔려 있다. 안전모와 조끼를 착용한 사람들이 말을 타고 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인다. 원형의 트랙을 따라 말이 도보를 시작하자, '초보기수'들은 말 움직임에 맞춰 상하로 몸을 움직인다. 언뜻 유럽의 고급 승마클럽을 떠올리게 하는 이곳은 강원도 흥천의 리조트 '대명 소노펠리체(Sonofelce)'에 있는 승마클럽이다.

강원도 지역은 리조트와 콘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격전지다. 전에는 보다 저렴한 '가경쟁력'이 선택의 절대 요소 중 하나였지만 요즘은 그와 함께 조금 비싸더라도 쾌적하고 남과 다른 여가를 희망하는 수요도 늘고 있다.

이탈리아어로 꿈을 뜻하는 '소노'와 행복, 즐거움을 뜻하는 '펠리체'의 합성어인 소노펠리체는 대명이 고급 브랜드로 공을 들이는 리조트다. 스타우드나 아코르, 힐튼 같은 해외 유명 호텔체인들은 저마다 그룹을 대표하는 최상위 브랜드로 세인트레지스, 소피텔, 콘라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소노펠리체 역시 내수를 넘어 중국 등 해외 인바운드 고급 관광객까지 노리는 대명의 포부가 담긴 브랜드다.

기존 리조트와 차별화된 고급 이미지를 노리는 소노펠리체의 전략은 큰 객실 공간과 파격적인 부대시설에서 잘 나타난다. 총 객실 504실이며, 다른 리조트나 콘도보다 큰 40평대 기본 객실이다. 60평대 객실에는 실내에 자쿠지(거품

욕조)를 설치했고, 최상위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100평이 넘는 듀플렉스(복층) 구조다.

소노펠리체의 '럭셔리 마케팅'을 상징하는 것은 승마클럽과 골프장으로 대변되는 부대시설이다. 승마클럽은 국내에선 유일하게 가로 31m, 세로 72m 크기의 대형마장과 조보자용 소형 등 두개의 실내 마장을 갖고 있다. 여기에 야외마장, 실내연습장, 원형마장 등의 시설과 50두의 말을 보유하고 있다. 김홍철 승마클럽 총지배인은 "고객의 동선을 최소화한 이용의 편리성을 높였고, 강습마와 강사 수가 많아 넉넉한 시간을 갖고 낙마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노펠리체 CC는 18홀 퍼블릭 골프장이지만 회원제 CC급의 시설과 서비스를 표방한다. 코스 전장 7250야드(6630m)로 힐링코스(9홀)와 에코코스(9홀)로 구성되어 있다.

흥천(강원도) | 김재범 전문가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aukid

금호타이어, 美 조지아 공장 건설 7년 만에 재개

2016년 초 완성차용 타이어 생산 전망

금호타이어가 채권단의 투자 승인으로 미 조지아 공장 건설을 재개, 세계 최대 타이어 시장인 북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금호타이어는 현지 시장상황을 검토해 조지아주 메이컨에 약 4억1300만 달러를 투입, 2016년 초 준공을 목표로 연간 400만개 생산능력(CAPA)을 갖춘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미 조지아 공장에서는 생산된 제품은 완성차용(OE) 타이어에 전량 공급될 예정이며, 미국공장이 준공되면 해외 생산능력이 국내 생산능력을 앞서는 된다. 금호타이어 미국공장은 2008년 착공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7년 만에 재개, 2016년 초부터 생산이 예상된다.

전 세계 타이어시장은 16억 개로 추산되며 이중 북미시장이 약 20%를 차지한다. 특히 북미시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프리미엄시장으로 생산기지 건설은 OE공급 확대 차원에서 완성차 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용이하다. 금호



금호타이어 미국 조지아 공장 조감도

타이어 미국공장은 현대차 알라바마(296km)와 기아차 조지아 공장(177km)과도 근접해있다.

조중석 전략기획담당 상무는 "이번 조지아 공장 설립은 향후 미국시장에서 금호타이어의 시장 지위를 빠르게 격상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미를 기반으로 한 완성차업체 공급에 있어서도 프리미엄 차종으로 지속, 확대하고 있어 수익성 역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내 신용카드 현황 '콜센터 1332'서 확인하세요

이름·전화번호 접수 후 보유 카드 통보

지갑을 분실했거나 신용카드 발급 후 사용하지 않아 카드 보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전화 한 통화로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콜센터(1332)로 전화를 걸면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금융민원·상담전화 1332'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또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된 연락처를 한 번에 모두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선보인다. 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는 콜센터에 전화해 이름과 전화번호를 접수하면 금융원은 이를 카드 회사에 통보하고 각 카드사에서 본인 확인 후 내역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기억하지 못해 느끼는 소비자의 불안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서비스는 올 3분기(7~9월) 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연락처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한 번에 연결해 주는 서비스도 늦어도 10월 이전에 제공된다. '1332'로 연락해 연락처 등 정보를 변경코자 하는 금융사를 선택하면 된다. 금융원은 해당 민원을 접수하면 금융사에 이를 통보하고 각 금융사는 즉시 소비자에게 연락을 취해 본인확인 후 정보를 변경하게 된다.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콜센터를 통해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재무 관련 진단항목을 전화로 응답한 후 결과를 읽어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김재혁 기자 ajaplo@donga.com 트위터 @ajaplo